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장: 우리 ‘자연 사랑’ 환경 동아리는 매년 동아리 첫 시간에 그 해 어떤 활동을 할지 토의합니다. 작년에는 하천 정화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활동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먼저 활동에 대한 제안을 들은 후 부원들의 질의를 받고, 투표를 통해 활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작년 활동이 의미는 있었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그만큼 실제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아리 시간마다 한 권씩 책을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독서를 통해 환경 관련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A]

부원 2: 저도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장처럼 쓰이고 있는 학교 운동장 옆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면 좋겠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천연 비료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 깨끗해질 수 있고요.

부장: 독서를 통해 환경 관련 공부를 하자는 의견과 운동장 옆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독서 활동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3: 우리 동아리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서가 이러한 우리 동아리의 목적에 적합할까요?

부원 1: 독서가 동아리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는 환경 관련 활동만큼 독서를 통해 환경에 대해 아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원 3: 저도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아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독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쓰레기 줍기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B]

부원 4: 저는 독서 활동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부원마다 읽고 싶은 책도 다르고 읽는 속도도 달라서 같은 책을 동시에 읽기 어려운데,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부원 1: 각자 원하는 책을 정해서 동아리 시간에 자율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부원 4: 그렇다면 독서는 동아리 활동보다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부장: 다음은 텃밭 가꾸기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3: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원 2: 우선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서 공터를 텃밭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부원 4: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꼭 텃밭을 가꾸어야 하나요?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원 2: [가]

1.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부원 1’은 작년 동아리 활동의 문제점을 근거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 ② [A]에서 ‘부원 2’는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근거로 텃밭 가꾸기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 ③ [B]에서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작년의 활동을 토대로 독서가 동아리 활동으로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④ [B]에서 ‘부원 3’은 ‘부원 1’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독서 활동이 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B]에서 ‘부원 4’는 독서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부원 1’에게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 ‘부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토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⑤ 토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3. 다음은 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원 2’가 찾은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에서 할 수 있는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텃밭 관리 방법

자신이 심은 작물은 스스로 관리하며, 지지대 세우기와 천연 비료 만들기 등은 시간을 정해서 모두 함께 한다.

2. 텃밭 운영의 효과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동시에 함께 힘을 합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 ① 동아리 일지에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기록한다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동아리 부원 중 희망하는 사람들만 텃밭을 가꾸기로 한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발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텃밭을 가꾸는 과정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텃밭이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텃밭을 가꾸면서 인근 농촌 마을을 방문한다면, 지지대 세우기나 천연 비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텃밭의 구역을 나누어서 자신이 맡은 구역을 가꾸고 협업이 필요한 일은 함께 한다면,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4~5] 다음은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우리 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에 대해 아시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벌써 멘토 친구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은 바로 멘토에 관한 것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멘토는 원래 인물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웅 오디세우스 왕의 절친한 친구 ‘멘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멘토에게 부탁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멘토의 가르침에 힘입어 텔레마코스는 훌륭하게 성장했고,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감격하여 멘토에게 “역시 자네답다. 역시 멘토답다!”라고 크게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하게 제자를 키워낸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멘토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스승을 뜻하던 멘토라는 말은 오늘날 조언자, 상담자, 정신적 지주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멘토의 상대자, 즉 멘토에게 조력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멘토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 찾아보면서, 멘토가 멘티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멘토, 성실한 멘티가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한다면 우리 반의 학급 멘토링 프로그램도 잘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이 세운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해야겠어.
- ② 용어를 풀어 줌으로써 청중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해야겠어.
- ③ 화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 ④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여 청중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 마무리 부분에서는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5.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청중 1: 발표자는 우리 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기로 발표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
 청중 2: 예전에 『오디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도 멘토가 거기에서 유래했는지는 몰랐네.
 청중 3: 스승을 뜻하던 멘토라는 말이 오늘날 다른 의미로도 쓰이게 된 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조사해 봐야겠어.

- ① ‘청중 1’은 발표의 표현 방식에 대해 평가하면서 들었군.
- ② ‘청중 2’는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군.
- ③ ‘청중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군.
- ④ ‘청중 1’과 ‘청중 3’은 발표자가 한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고 있군.
- ⑤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며 들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이번 교지에 실릴 특별 기획 주제는 ‘급식’입니다. 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중, 우리 학교의 잔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다룬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급식 도우미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문지와 함께 인용해야겠어. ㉡
- 잔반 문제의 원인을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언급해야겠어. ㉢
- 잔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함께 설명해야겠어. ㉣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초고]

작년부터 급식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급식 후 버리는 잔반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고, 급식의 질에 대한 학생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학교에서도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정해 잔반을 가장 적게 남긴 학급에게 특별 후식을 제공하는 등 잔반 ㉠ 줄이기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그리고 우리 학교 점심시간은 다른 학교에 비해 짧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잔반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우선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끼의 식사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 버리는 일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자율 배식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밥과 반찬을 필요 이상으로 식판에 담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잔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잔반 없는 날’과 같은 방식은 단 하루,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뿐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잔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잔반을 줄이면 환경과 급식의 질 등에서 얻게 되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잔반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급식 도우미 활동에 ㉣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급식 준비와 정리 과정을 거들어 보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둘째, 잔반을 줄이는 데 성공한 학교의 실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음식의 분량 조절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우리 학교에 적용한다면 잔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잔반 없는 날’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잔반 없는 날’을 늘리고 홍보 캠페인을 ㉤ 벌이면 잔반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쌓일 때 잔반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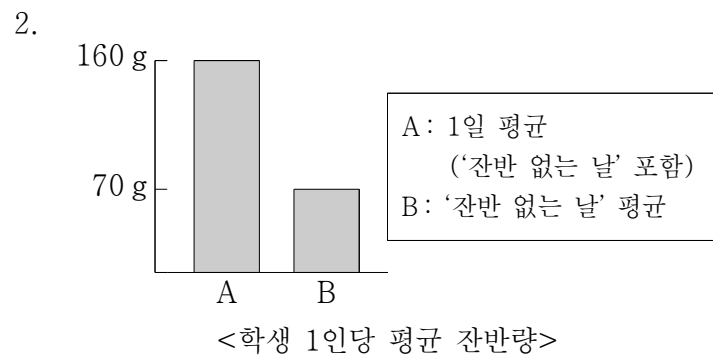
6. ㉠ ~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우리 학교 자료(급식 인원 1,729명, 연간 290회 급식)

1.	연간 1인당 평균 잔반량	46.8 kg
	연간 잔반 처리 비용	8,006,229원



(나) 우리 학교 영양교사 인터뷰

“잔반통에 쌓인 잔반을 볼 때면 무척 안타까워요. 음식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노력도 그렇지만, 이 재료들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다)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보고서

잔반을 줄이면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잔반 줄이기를 통해 잔반 처리 비용이 감소하면, 이를 식품비에 재투입하여 같은 급식비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라) 신문 기사

○○ 중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잔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식판을 만들었다. 이 식판은 자신이 식판에 담은 양을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식판을 도입한 후 ○○ 중학교의 잔반이 급감하였다고 한다.

- ① (가)의 1을 활용하여, 첫째 문단에서 급식 후 버리는 잔반의 양이 많다는 내용에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한다.
 ② (가)의 2를 활용하여, 둘째 문단에서 ‘잔반 없는 날’의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발휘된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③ (나)를 활용하여, 둘째 문단에서 자율 배식이 잔반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한다.
 ④ (다)를 활용하여, 셋째 문단에서 잔반을 줄이면 얻게 되는 이점이 많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추가한다.
 ⑤ (라)를 활용하여, 셋째 문단에서 잔반을 줄이는 데 성공한 학교의 실제 사례로 보강한다.

8.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줄이기의’로 바꾼다.
 ② ㉡: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음식을’을 첨가한다.
 ④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함께’를 삭제한다.
 ⑤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벌리면’으로 바꾼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감상문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감상문을 쓰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다큐멘터리는 황제펭귄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허들링’이라는 황제펭귄의 독특한 행동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이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썼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황제펭귄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허들링’에 대해 소개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허들링’이 주는 교훈에 대해 썼다. ㉠ 네 번째 문단에서는 나의 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학생의 글]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황제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턱시도를 입고 황금색 목도리를 두른 듯한 모습의 황제펭귄은 ‘남극의 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황제펭귄은 키가 1m, 몸무게가 50kg 가량 되는데, 황제펭귄의 항아리처럼 둥근 배에는 한겨울을 버텨낼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다. 황제펭귄은 한겨울이 되면 바다에서 나와 남극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는다. 한겨울에 영하 9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남극에는 황제펭귄의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남극의 추위를 황제펭귄은 어떻게 견뎌낼까? 황제펭귄은 ‘허들링(Huddling)’이라는 독특한 생존 방식으로 혹한을 이겨낸다. 황제펭귄은 맹추위가 찾아오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몸을 붙여 체온을 나눈다. 이때 황제펭귄은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이를 ‘허들링’이라고 한다. 모여 있다 보면 무리의 한 가운데는 따뜻하지만 바깥쪽은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허들링’을 하면서 서로의 자리를 맞바꾸는 것이다.

황제펭귄의 ‘허들링’은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 준다. 서로가 서로를 껴안아 줄 때 혹독한 시련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눈보라를 맞아줄 때 그 누군가도 나에게 온기를 전해 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일 것이다.

[A]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소개한다.
- ㉡ 사례를 들어 대상이 지니는 한계점을 구체화한다.
-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 대조적 대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0. ㉠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황제펭귄이 나보다 더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지금껏 나는 가족,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협력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생활해야겠다.
- ② 나는 추위를 꺾듯이 이겨내는 황제펭귄을 통해 나약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황제펭귄의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했다. 황제펭귄이 주는 감동을 다른 친구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 ③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황제펭귄의 모습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황제펭귄은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지혜로운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 모두가 황제펭귄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할까?
- ④ 나는 평소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 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독한 시련과 맞부딪쳐야 할 때가 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시련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 ‘이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 (1) 준영이가 책을 읽는다. / 읽느냐? / 읽는구나.
(2) 준영아, 책을 읽어라. / 읽자.

(1), (2)는 동사 ‘읽다’가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는 예이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읽-’은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인 ‘-는다, -느냐, -는구나, -어라, -자’는 어미이다. 이처럼 용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일을 ‘활용’이라 한다.

- (3) 꽃이 예쁘다. / 예쁘냐? / 예쁘구나.
(4) 꽃아, *예빠라. / *예쁘자. (*표는 비문법적인 표현.)

(3), (4)는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하는 예이다. (1), (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과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활용에는 ‘-는다, -느냐, -는구나’가 쓰이지만 형용사 활용에는 ‘-다, -(으)냐, -구나’가 쓰인다. 다음으로 (2)와 (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어간과 달리 형용사 어간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 / 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꽃이 참 예빠라!’와 같이 ‘예빠라’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어미이다.

- (5) 이것이 책이다.(*책이는다.) / 책이냐?(*책이느냐?) / 책이로구나.(*책이는구나.) / *책이어라. / *책이자.

(5)는 체언 ‘책’에 ‘이다’가 결합한 어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예이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다’도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 이때 ‘-는다, -느냐, -는구나’, 그리고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의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다’의 활용 양상은 대체로 (3), (4)에 나타난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②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③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④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 양상이 유사하다.
⑤ ‘이다’는 활용할 때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나는 주로 저녁에 씻는다.
㉡ 오늘 날씨가 정말 춥구나.
㉢ 규연아, 지금 밥 먹자.
㉣ 창문을 활짝 열어라.
㉤ 그는 어떤 사람이냐?

- ① ㉠의 ‘씻는다’는 어간이 ‘-는다’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② ㉡의 ‘춥구나’는 어간이 ‘-구나’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③ ㉢의 ‘먹자’는 어간이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④ ㉣의 ‘열어라’는 어간이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⑤ ㉤의 ‘사람이냐’는 체언에 ‘이다’가 결합한 말이 활용한 것이다.

13.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인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물[궁물]’과 ‘뭇[목]’에서는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 | 국물 | 뭇 |
|------|----|
| ① 교체 | 탈락 |
| ② 교체 | 첨가 |
| ③ 탈락 | 축약 |
| ④ 첨가 | 교체 |
| ⑤ 첨가 | 탈락 |

14. ㉠ ~ ㉡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 객체 높임이 있다.

선생님 :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 기특하다. 할머니를 ㉡ 뵙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 저런, 할머니께서 ㉤ 편찮으셨나 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기강이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무너지다’가 된다. ‘벗다’도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반의어가 여럿이다.		
단어	예문	반의어
벗다	외투를 벗다.	입다
	(가)	쓰다
	배낭을 벗다.	(나)

- | | |
|-----------|-----|
| (가) | (나) |
| ① 누명을 벗다. | 메다 |
| ② 안경을 벗다. | 끼다 |
| ③ 장갑을 벗다. | 차다 |
| ④ 모자를 벗다. | 걸다 |
| ⑤ 허물을 벗다. | 들다 |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이러한 휴리스틱에는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리고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등이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는 키 198 cm인 사람이 키 165 cm인 사람보다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흔히 첫인상을 형성할 때나 타인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작용한다. 그런데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작년 겨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어보면,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려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발생 확률과는 다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사례, 생동감 있는 사례,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회상한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 장면을 담은 충격적인 뉴스 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은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경찰관이 그 용의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범죄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경찰관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해야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상적 장면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도 전에 그를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 볼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판단과 추론이 항상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 ‘인지적 구두쇠’라고 할 만하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짐작을 하게 된다.
- ② 사람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충격적이지 않은 경험보다 더 쉽게 회상한다.
- ③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가상의 상황을 반복하여 상상하면 마치 그 상황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가상의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17. ㉡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 ① 인간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 ② 인간은 주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③ 인간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④ 인간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 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18. 다음은 휴리스틱과 관련한 실험 내용이다. 밑글로 보아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영미는 31세로 감성적이며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여성이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사진 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하였다.’라는 정보를 제시한 후, 영미가 현재 어떤 모습일지 A와 B 중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였다.

- A. 영미는 은행원이다.
B.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적어도 B보다 A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표성 휴리스틱이 이러한 판단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 보고, B의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① 최근에 여행 블로그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② 대표적인 여행 블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판단해
③ 영미가 은행원보다는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④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 블로그에서 검색했던 경험을 떠올려
⑤ 영미가 은행원이 되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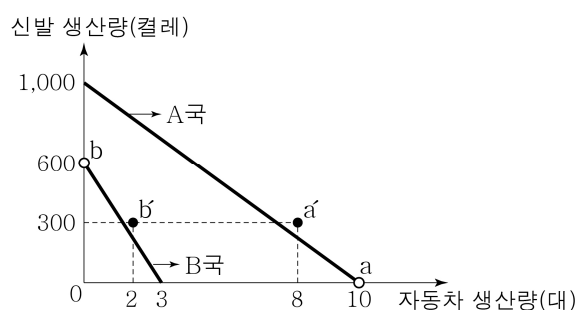
19. ㉠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김 씨는 오십이 넘어 늦게 아들을 보았다.
② 나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세차를 했다.
③ 그녀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까 봐 걱정했다.
④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다.
⑤ 그는 보던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을 새로 신청했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나라가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무역 당사국이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A국은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최대 자동차 10대 혹은 신발 1,000켤레를 만들 수 있다. 한편, B국에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차 3대 또는 신발 600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이때 국가 간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

하며,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위의 상황에서 A국이 자동차를 1대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발 생산을 100켤레 줄여야 한다. 즉, A국 입장에서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신발 100켤레와 같다. 한편, B국은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신발 200켤레가 된다. 이 경우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 B국은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A국이 자동차를 특화해 B국에 수출하고, B국은 신발을 특화해 A국에 수출하면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위 <그림>에서 A국이 자동차만 10대 생산(a)하고 B국이 신발만 600켤레를 생산(b)해서 양국이 무역을 한다고 하자. 이때 A국이 자동차 2대를 수출하고 그 대신 B국으로부터 신발 300켤레를 수입한다면, A국은 자동차 8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a')을, B국은 자동차 2대와 신발 300켤레의 조합(b')을 소비할 수 있다. 즉 무역을 통해 양국은 무역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재화량의 조합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헉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즉 재화마다 각 생산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기 마련인데, 어떤 재화 생산에 특정 생산요소가 집약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생산요소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자동차·선박 등 자본 집약재의 수출국이고 신발·의류 등 노동 집약재의 수입국이라면, 그 국가는 타국에 비해 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노동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경공업 위주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최근의 지식 집약적인 IT 산업까지 주요 산업 및 수출품이 변화해 왔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각 생산요소들의 부존 비율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산업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 * 생산 가능 곡선: 한 경제의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 선.
- * 생산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투입 요소.
- * 생산요소 부존량: 한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

2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가상적 상황을 예로 들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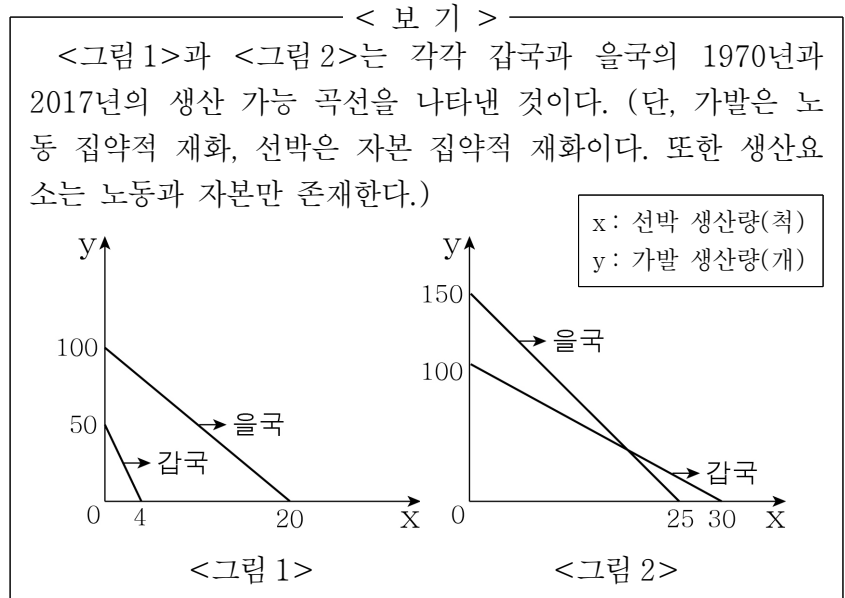
21. 밑글을 통해 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자발적인 무역이 한 나라의 각 재화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③ 어떤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④ 자발적인 무역에서 어떤 재화가 수출품이 되고 어떤 재화가 수입품이 되는가?
- ⑤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자발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자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②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③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④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이 A국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 ⑤ 이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23.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970년, 갑국이 선박을 2척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25개 줄여야 했을 것이다.
- ② 197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보다는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했을 것이다.
- ③ 2017년,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2배 이상 클 것이다.
- ④ 2017년, 을국은 갑국에 비해 노동의 부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 ⑤ 2017년, 갑국이 을국에 선박 1척을 수출하고 을국으로부터 가발 4개를 수입한다면, 무역 전에 비해 갑국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의 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범종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찰로 퍼져 나갔다. 중국 종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종은 각각 독특한 조형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조형 양식은 신라에서 완성되었다. 신라에서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을 주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주조 공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은 조선 초기를 기점으로 한 ㉠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후대의 범종으로 계승되었다.

신라 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종은 몸체의 하부가 팔(八)자로 벌어져 있으며, 일본 종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범종의 정상부에는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뉴(龍鈕)가 있는데, 신라 종의 용뉴는 쌍용 형태인 중국 종이나 일본 종의 용뉴와는 달리 한 마리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용뉴 뒤에는 우리나라의 범종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통이 있다.

주조 공법이 발달했던 신라의 범종에는 섬세한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어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차이를 보인다.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상대와 하대라고 부르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 띠가 있는데, 여기에는 덩굴무늬나 연꽃무늬 등의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다. 상대 바로 아래 네 방향에는 사다리꼴의 유곽이 있으며 그 안에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된 유두가 9개씩 있어,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는 일본 종이나 유두와 유곽 모두 존재하지 않는 중국 종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撞座)가 있으며,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天人像)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가로 세로의 띠만 있는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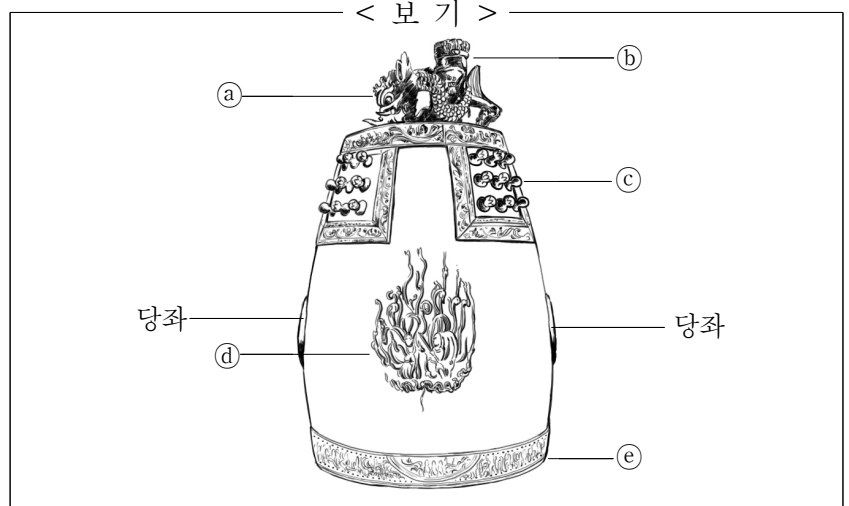
고려 시대에는 이러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미약한 변화 속에서 계승된다. 전기에는 상대와 접하는 종의 상판 둘레에 견대라 불리는 어깨 문양의 장식이 추가되고 유곽과 당좌의 위치가 달라지며, 천인상만 부조되어 있던 자리에 삼존불 등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 후기로 가면 전기 양식의 견대가 연꽃을 세운 모양으로 변하고, 원나라의 침입 이후 전래된 라마교의 영향으로 범자(梵字) 문양 등의 장식이 나타난다. 한편, 범종이 소형화되어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계승되면서도 그러한 조형 양식을 지닌 대형 종의 주조 공법은 사라지게 된다.

조선 초기에는 새 왕조를 연 왕실 주도로 다시 대형 종이 주조된다. 이때 조선에서는 신라의 대형 종 주조 공법을 대신 하여 중국 종의 주조 공법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종처럼 음통이 없이 쌍용으로 된 용뉴가 등장하며, 당좌가 사라지고, 신라 종의 섬세한 장식 대신 중국 종의 전형적인 장식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한동안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고,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소형 종이 주조되면서 사라졌던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다시 나타난다. 그 후 이러한 혼합 양식과 복고 양식이 병립하다가 복고 양식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범종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2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려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범종은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② 신라 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불교적 상징물이 장식되어 있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 띠가 있다.
- ③ 신라 시대부터 범종에 장식되어 있었던 당좌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사라지기도 하였다.
- ④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범종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것과 관련이 있다.
- ⑤ 신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주조 공법으로 대형 종을 주조하였다.

25. <보기>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의 그림이다. 이 범종의 ㉠~㉡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이 한 마리인 형태의 ㉠은 쌍용 형태인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차이가 있다.
- ② ㉡는 중국 종이나 일본 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라 종의 독특한 조형 양식에 해당한다.
- ③ 중국 종에는 ㉢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 종에 존재하는 것은 ㉢와 형상이 다르다.
- ④ 일본 종은 신라 종과 달리 ㉣의 주변에 가로 세로의 띠가 있다.
- ⑤ 신라 종은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 달리 몸체의 정점부가 ㉡ 부분보다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

26. ㉠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조선 시대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범종 제작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려 시대에 종이 소형화되면서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이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③ 중국 종의 주조 공법으로 대형 종을 만들면서 중국 종의 조형 양식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16세기에 사찰 주도로 범종을 주조할 때 신라 종의 조형 양식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⑤ 조선 초기에 사찰 주도로 대형 종을 주조하면서 섬세한 조형 양식을 지닌 신라 종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을 ‘계(system)’라고 하고, 계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주위(surroundings)’, 계와 주위 사이는 ‘경계(boundary)’라고 한다. 계는 주위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고립계’,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단한계’,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모두 일어나는 ‘열린계’로 나눌 수 있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므로, 계와 주위의 에너지 합 또한 일정하다.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다면, 계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하며, 계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계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로, 계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로 표시한다. 한편, 계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흡열 과정, 계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열은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흡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Q$ 로, 발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Q$ 로 나타낼 수 있다.

계의 에너지는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열역학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열역학적 변수들이 ㉠ 같은 계들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연결된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에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가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피스톤을 고정하지 않은 채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_1 로 일정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실린더를 가열하여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_1 에서 T_2 가 되도록 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한편, 피스톤을 고정하여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실린더를 가열하면,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가 T_1 에서 T_2 가 되는 동안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P_1 에서 P_2 로 증가하는데, 온도가 T_2 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정시켰던 피스톤을 풀면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이 P_1 이 될 때까지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를 A, 후자의 경우를 B라고 하면, A는 T_1 , P_1 인 초기 상태에서 T_2 , P_1 인 최종 상태가 되었고, B는 T_1 , P_1 인 초기 상태에서 T_2 , P_2 인 상태를 거쳐 T_2 , P_1 인 최종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계라 할 수 있는 A와 B가 같은 상태에 있으면, A와 B의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때 A의 초기 상태와 B의 초기 상태, A의 최종 상태와 B의 최종 상태는 각각 같지만,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경로는 다르다. 따라서 두 계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두 계가 만들어진 과정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는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진행하면서 거치는 일련의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상태를 연결하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열역학적 변수들이 같은 두 계는 같은 상태에 있다.
- ②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 ③ 열린계에서는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에너지 교환만 일어난다.
- ④ 어떤 계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진행하면서 거칠 수 있는 경로는 무한히 많다.
- ⑤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계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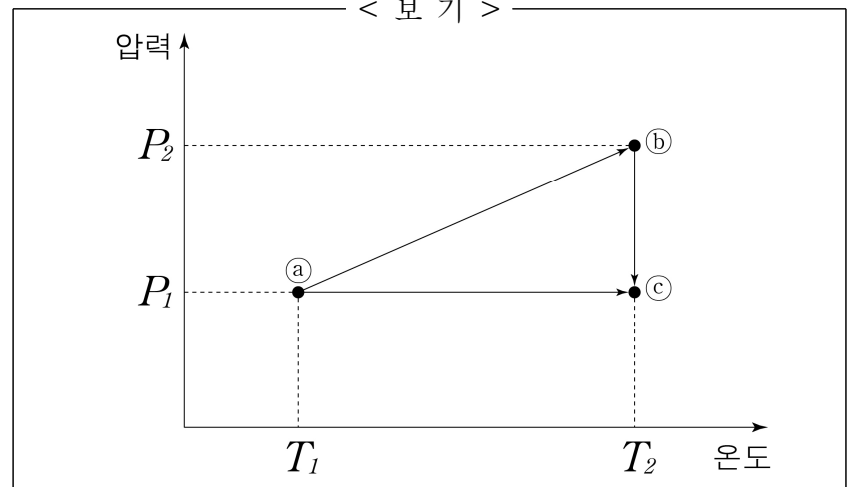
< 보 기 >

물이 담긴 수조에 절반 정도 잠기도록 놓인 비커 속 물에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 용액을 만들면, 묽은 황산 용액은 물론 비커 주위의 수조 속 물의 온도까지 높아진다. 이는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이 열이 수조 속 물에도 전달되기 때문이다.

- ① 묽은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 과정으로, 이 과정과 관련된 열은 $-Q$ 로 표시되겠군.
- ② 진한 황산을 넣은 물은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고립계에 해당하겠군.
- ③ 비커 속 물의 에너지와 수조 속 물의 에너지는 모두 감소하겠군.
- ④ 묽은 황산 용액은 수조 속의 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겠군.
- ⑤ 비커 속의 물과 수조 속의 물은 모두 경계에 해당하겠군.

29. <보기>는 [가]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A의 경우 a 상태에서 c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 ② B의 경우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 ③ B의 경우 b 상태에서 c 상태가 되는 경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 ④ a 상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같을 것이다.
- ⑤ c 상태에서 실린더 속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가 클 것이다.

30. 문맥을 고려할 때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 ② 동반한
- ③ 동화한
- ④ 균일한
- ⑤ 유일한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비알에 돌발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굶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나)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3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③ (가)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는 반어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나)는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나)는 특정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건설된 현대 문명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다양한 생명들은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 문학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인간형을 성찰하고 있는데, (가)와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가)의 ‘산비알에 돌발에 저절로 나서’는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에서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 ③ (가)의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은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면서 다양성이 훼손된 자연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구부러진 길’은 ‘민들레’, ‘사람’, ‘들꽃’ 등의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과도한 경쟁으로 생겨난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인간형으로 볼 수 있다.

33. [A]의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흙투성이 감자’의 긍정적 의미와 어울리고, ㉡은 ‘구부러진 삶’의 부정적 측면과 어울린다.
- ② ㉠은 ㉡과 더불어 ‘반듯한 길 쉽게’와 의미상 대비를 이루며 ‘흙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 ③ ㉠은 ㉡과 더불어 ‘흙투성이 감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구부러진 삶’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④ ㉠은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은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⑤ ㉠은 ‘반듯한 길’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은 ‘구부러진 길’을 적극적으로 예찬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윤창권은 가족과 함께 일제 치하의 고향을 떠나 만주 장자위푸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조선 이주민 집단에 합류한다.

깊은 겨울엔 땅 속이 한 길씩 언다. 얼기 전에 삼십 리 대간선*은 켜어 놓아야 내년 봄엔 물이 온다. ㉠ 이것을 실패하면 황무지엔 잡곡이나 뿌릴 수밖에 없고, 그 면적에 잡곡이나 뿌려 가지고는 그 다음해 먹을 수가 없다.

창권이넌 새로 와서 지리도 어둡고, 가역(家役)*도 끝나기 전이라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구역을 맡았다. ㉡ 한 삼 마장 길이 되는 대간선의 끝 구역이었다. 그것을 쿨리* 다섯 명을 데리고, 넓이 열두 자, 깊이 다섯 자로, 얼기 전에 뚫어 놔야 한다. 여간 대규모의 수리공사가 아니다. 창권은 가역 때문에 처음 얼마는 쿨리들만 시키었으나, 날이 자꾸 추워지는 것이 겁나 집일 웬만한 것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맡기고 붓도랑 내는 데만 전력하였다.

㉢ 쿨리들은 눈만 피하면 피를 피웠다. 우묵한 양지쪽에 앉아 이를 잡지 않으면 졸고 있었다.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 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주 투덜대었다. 다행히 돌은 없으나 흙일은 변화가 없어 타박타박해 힘들고 지리했다.

이런 일이 반이나 진행되었을까 한 때다. 땅도 자꾸 얼어들어 일도 힘들어졌거니와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날도 역시 모두 제 구역에서 제가 맡은 쿨리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쿨리들이 먼저 보고 둔덕으로 뛰어올라가며 뭐라고 떠들어 댔다. 창권이라도 둔덕으로 올라서 보았다. 한편 쪽에서 갈가마귀떼처럼 이곳 토민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가 져서 새까맣게 물려오는 것이다.

‘마적떼 아닌가!’

그러나 말을 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더러는 이쪽으로 몰려 오고 더러는 동네로 들어간다. 창권은 집안 식구들이 걱정된다. 삽을 든 채 집으로 뛰어들어가다가 그들 한파와 부딪혔다. 앞을 툇 막아서더니 쪽 에워싼다. 까울리, 까울리방즈,* 어찌구 한다. 조선 사람이나고 묻는 눈치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한 자가 버럭 나서며 창권이 잡은 삽을 낚아 찌른다. 창권은 기운이 부쳐서가 아니라 얼떨결에 삽자루를 놓쳤다. 삽을 빼앗은 자는 삽을 번쩍 쳐들고 창권을 내려치려 한다. 창권은 얼굴이 퍼렇게 질려 뒤로 물러났다. 창권에게 발등을 밟힌 자가 창권의 등덜미를 잡는다. 그러고는 일제 깔깔 웃어 댈다. 삽을 들었던 자도 삽을 휘휘 두르더니 발 가운데로 뺨개쳐 버린다. 그러고는 창권의 먹살을 잡고 붓도랑 내는 데로 끄는 것이다.

창권은 꼼짝 못 하고 끌렸다. 뭐라고 각기 제대로 떠들고 샷대질이더니 창권을 붓도랑 바닥에 고꾸라뜨린다. 창권이넌 아니라 붓도랑 일을 하던 쿨리들도 붙들어 가지고 힐난이다. 붓도랑을 못 내게 하는 모양이다. ㉣ 그러자 윗구역에서, 또 그 윗구역에서 여깃말 할 줄 아는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동리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권은 눈이 제지게 놀랐다. 윗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팽이를 둘러메고 여기 토민들 몰켜선 데로 뭐라고 여깃말로 호통을 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찍으려 덤벼드는 것이다. 몰켜 섰던 토민들은 와 흠어져 버린다. 창권을 둘러쌌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선다. 동리에서는 조선 부인네들 몇은 식칼을 들고, 낫을 들고 달려들 나오는 것이다. 낫과 식칼을 보더니 토민들은 제 각기 사방으로 흠어져 달아난다. 창권은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

‘여기선 저럭해야 사나 부다! 아니, 이 붓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

아까 등덜미를 맞고, 먹살을 잡히고 한 분통이 와락 터진다.

㉤ 다리 오금이 날갯죽지처럼 뻗는다.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찬가지다!”

달아나는 녀석 하나를 다우쳤다. 뒷덜미를 낚아챘다. 공중걸이로 나가떨어진다. 또 하나 쫓아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난다. 어머니가 달려오며 붙든다.

이 장자위푸를 수십 리 둘러 사는 토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조선 사람들이 보통*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보동을 내어 논을 풀면 그 논에서들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방바닥 같은 들이라 자기네 밭에 모두 침수가 될 것이니 자기네는 조선 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떠나야 옳으냐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다. 자기네 벼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거니와 이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다. 고소하지도 않을 뿐더러 배가 아파진다는 것이다. 그럼 먹지는 못하더라도 벼를 장춘으로 가지고 가 팔면 잡곡을 몇 배 살 돈이 나오지 않느냐? 또 벼농사를 지을 줄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 줄 터이니 그대로 해보라고 하여도 완강히 반대로만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사람이 칼이나 낫으로 덤비면 저희에게도 도끼도 몽둥이도 있다는 투로 맞서는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기가 틀렸다. 쿨리들이 다 달아났다. 땅이 자꾸 얼었다. 삼동 동안은 그냥 해토*되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해토가 된다 하여도 조선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못자리는 우물물로 만든다 치더라도, 모낼 때까지 붓물을 끌어오게 될지 의문이다. [A]

그러나 이 보통 이외에 달리 살 길은 없다. 겨울 동안에 황채심과 몇몇 이곳 말 잘하는 사람들은 나서 이웃 동네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였다. 보동을 낸다고 해서 물을 무제한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장치로 조절한다는 것과 조선서는 붓물이 오면 수세를 내면서까지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것과 여기서도 한 해만 지어 보면 나도 나도 하고 물이 세가 나게 될 것과 우리가 벼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벼만 지어 놓으면 팔기는 우리가 나서 주선했을 것이니 그것은 서로 계약을 해도 좋다고까지 역설하였으나 하나같이 쇠귀에 경읽기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동네에선 사나운 개를 내세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악만 남았다.

추위는 하루같이 극성스럽다. 더구나 늦게 지은 창권이네 집은 벽이 모두 얼음장이 되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방 안에다 조짚을 엮어 둘러쳤다. 석유도 귀하거니와 불이 날까 보아 등잔도 별로 켜지 못했다. 불 안 켜는 밤이면 바람 소리는 더 크게 일어났다.

- 이태준, 「농군」 -

* 대간선: 수로나 도로 등의 시설에서 중심이 되는 큰 줄기의 선.

* 가역: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현지인 노동자.

* 까울리, 까울리방즈: 중국인이 한국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

* 보통: 보를 둘러쌓은 둑.

* 해토: 얼었던 땅이 풀림.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
- ②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내면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시점의 변화를 통해 사건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연쇄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작업의 규모와 기한을 밝혀 '창권'의 부담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 행동 묘사를 통해 '쿨리들'의 불성실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상황의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비유를 통해 '창권'이 느낀 두려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각기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충돌한다. 한 편은 이 공간을 변화시키므로써 기존의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 공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려 한다. 하지만 다른 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한 침해이자,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만들려는 시도로 인식된다. 이들 간의 충돌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한층 더 절박한 양상을 띠게 된다.

- ① '장자위푸'의 혹독한 기후와 낯선 언어는, 조선인 집단에 갖 합류한 창권으로 하여금 공간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군.
- ② 조선인들이 붓도랑을 내는 것은 '장자위푸'라는 낯선 공간을 벼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을 지속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군.
- ③ 조선인들이 일하는 구역에 '토민들'이 몰려와 방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유지해 오던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조선인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창권이 붓도랑을 '우리 목줄'로 인식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조선인들과 '토민들'이 대립하는 것은 양측 모두 '장자위푸'라는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군.

37.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제기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열거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주장과 반론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③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면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과거의 시대 상황에서 탐색하고 있다.
- ④ 설득이 실패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공동체가 난관에 대처하는 방식을 서술하여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대군은 열 명의 궁녀를 뽑아 자신의 궁에 두고서 외부와의 교류를 금하고 시 짓기를 가르쳤다.

“처음 보았을 때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으나 거듭 읽노라니 자란의 시가 뜻이 심원하여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흥겨운 마음이 드는구나. 나머지 시들 또한 모두 맑고 좋은데,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준엄히 캐물을 일일로되 그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기로 한다.”

[A]

저는 뜰로 내려가 엎드려 울며 대답했습니다.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군께 의심을 받으니 첩은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

대군은 자리에 앉으라 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서 가리고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다. 너는 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비단 열 꾸러미를 내어 우리 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군이 일찍이 제게 사사로운 마음을 보인 적이 없으나 궁중 사람들은 모두 대군의 마음이 제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 사람은 방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등불을 환히 밝히고는 칠보로 만든 책상 위에 『당유』한 권을 놓아두고 궁녀들의 원망을 담은 옛사람들의 시 중 어떤 작품이 훌륭한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 혼자 병풍에 기대어 흠으로 빚어 놓은 인형처럼 근심스레 말이 없자 소옥이 저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낮에 연기를 읊은 시로 주군에게 의심을 받더니 그 때문에 근심스러워 말이 없는 거니? 아니면 주군의 뜻이 네게 있겠기에 속으로 기뻐서 말이 없는 거니? 네 속을 모르겠구나.”

제가 웃기를 여미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안단 말이니? 지금 막 시 한 편을 지으려는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느라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B]

은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뜻이 향하는 곳이 있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니 옆 사람의 말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겠지. 네가 말하지 않는 까닭을 알긴 어렵지 않아. 어디 내가 한번 맞춰 볼까?”

그러더니 창밖의 포도 시렁을 주제로 칠언 사운의 시를 지어보라 재촉하더군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운영은 진사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들려주며 진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란에게 털어 놓는다.

“나는 이때부터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이 줄었으며 마음이 답답하여 모르는 사이에 옷과 허리띠가 헐렁해졌단다. 너는 이 일을 기억 못하겠니?”

자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지금 네 말을 듣고 보니 술에서 막 깨어난 듯 어스푸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구나.”

그 뒤로 대군이 진사와 자주 만났으나 저희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기에 저는 그때마다 문틈으로 엿보고 했습니다. 하루는 고운 종이에 오연 사운의 시 한 수를 적었어요.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
늘 주름 사이로만 바라보나니
월하노인*의 인연 어디 없는지?
얼굴 씻으매 눈물이 물을 이루고
거문고 타매 한스러움 현을 울리네.
가슴 속 원망 끝이 없어서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이 시]와 금비녀 하나를 함께 싸서 열 겹으로 거듭 봉하여 진사에게 주고자 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달 밝은 밤에 대군이 술자리를 크게 열어 손님을 모으고 진사의 재주를 매우 칭찬하며 일전에 진사가 지은 시 두 편을 내보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돌려 보며 칭찬하기를 마지않더니 모두들 진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군이 즉시 하인과 말을 보내 진사를 초청했습니다. 잠시 후 진사가 도착하여 자리로 오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몸은 홀쭉한 것이 예전의 기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군이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사는 굴원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연못가에서의 초채한 모습부터 미리 가진 게요?”

모여 있던 이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진사가 일어나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빈천한 유생으로서 외람되이 나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법인지, 질병이 온 몸을 휘감아 요사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우나 지금 부르심을 받자와 겨우 부축을 받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손님들이 모두 몸가짐을 바꾸어 공손함을 표했습니다. 진사는 나이 어린 유생으로서 말석에 앉았기에 저희가 있던 안쪽 방과는 단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이미 다하여 손님들이 모두 취했을 때입니다. ㉠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 있더군요. 저는 봉한 편지를 구멍 사이로 던졌습니다. 진사는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가서 뜯어보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편지를 차마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워하는 정이 지난날보다 곱절이 되어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고, 답장을 보내고자 하나 전할 방도가 없는지라 홀로 수심에 잠겨 탄식할 뿐이었지요.

— 작자 미상, 「운영전」 —

* 월하노인: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

38.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대군은 여러 궁녀들의 시와 비교하면서 운영의 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A]에서 대군은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운영의 대답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③ [B]에서 소옥은 [A]의 상황에 근거하여 운영이 침묵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 ④ 운영은 [A]의 대군과 [B]의 소옥 모두에게 자신의 진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B]에서 은섬은 운영이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운영의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

39. 윗글과 관련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 /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는 진사에 대한 운영의 호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주름 사이로만 바라보나니’는 진사를 문틈으로 엿볼 수밖에 없었던 운영의 처지와 유사한 구절로 볼 수 있군.
- ③ ‘월하노인의 인연 어디 없는지?’는 진사와 인연을 맺기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운영의 한탄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얼굴 씻으매’ 흐르는 ‘눈물’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자란에 대한 운영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거문고를 타매’ 드러나는 ‘한스러움’은 혼자 병풍에 기대어 근심스레 말이 없던 운영의 심정과 연결할 수 있군.

40. ㉠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② 인과응보(因果應報)
- ③ 견물생심(見物生心)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 ⑤ 수구초심(首丘初心)

[41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노비 소이는 한자를 몰라 이도(세종)가 심온에게 보낸 비밀 명령(밀지)이 바뀐 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심온과 소이의 가족은 모두 죽게 되고, 소이는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다. 그 후 소이는 궁궐 나인이 되어 한자를 익히게 된다. 한편 이도는 농민들을 위해 ‘농사직설’을 편찬하지만, 한자를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목격한다.

#23. 이도의 집무실(밤, 회상)

어두운 얼굴로 터덜터덜 들어오는 이도. 탁자 위에 그사이 늘어난 작은 모형들이 있다. 자격루, 혼천의, 향약집성방, 양부 일구(이름 모두 자막 표기) 등등을 보는 이도.

이도 : (스스로 비웃듯이 보며) 또..... 지랄을 했던 말인가..... 헛지랄.....

하고는 자격루를 들어 보인다. 무표정하게 내던지는 이도. 놀라는 근지, 목야, 덕금. 이도, 하나씩 때려 부순다. 무표정하게. ‘농사직설’을 집어 찢으려는데, 그때 들어온 정인지가 몸으로 말린다.

정인지 : (감히 몸으로 안으며) 전하! 아니 되웁니다!

이도 : (막무가내로 찢으려는데)

정인지 : 전하, 실패가 아니웁니다! 농사직설이 보급되어, 실제로 수확량이 늘고 백성들의 살림이 풍요로워지고 있지 않사옵니까!

이도 : (확 노력하며) 네깻 놈도 정치가랍시고, 숲만 보는 것이냐? 나무는 보지 않냐? 풍성해진 숲 안에 한 그루 한 그루 찍어 가는 나무들은 상관없단 말이나!

정인지 : (아무 말 못하는데)

이도, 정인지를 밀치고 확 나가려는데, 구석에 서 있는 소이가 보인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궁녀들과 달리 차가운 무표정의 소이.

이도 : (그런 소이에게 시선 고정한 채) 너희들 모두 나가 있거라.

정인지, 불안하게 보다가 근지, 목야, 덕금을 데리고 나간다. 소이,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도 : 어찌 그리 보는 것이야.

소이 : (무표정하게 보고)

이도 : (소이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며) 그 긴 세월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은 얼마나 단단하기에 그리 열리지 않는 것이냐.

소이 : (역시 반응 없이 무표정하게 본다)

이도 : 이해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다.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너에게 다 자세히 설명했다.

이도 : 너희들을 살리려 밀지를 보냈지만, 밀지가 바뀌었다고!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난 누구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할 만큼 했다고! 현대 바뀌지 않아. 너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소이 :

이도 : 네가 이리된 것이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것도 온전히 내 책임이냐? 너의 남은 삶이 모두 내 책임인 것이냐? 아니다!

소이 :

이도 : (떡살을 잡으며) 넌 네 인생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 살배기 아기처럼 세상을 향해 때를 쓰고 있을 뿐이야! 아니냐? 말을 해 봐! 말을!

소이 : (무표정하게)

이도 : (보다가 체념한 듯) 너도..... 말..... 못하는 게 벼슬이냐? 좋겠구나.....

하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소이가 탁자에 있던 붓을 들어 종이에 한자로 무엇인가를 쓴다. 나가다 말고 소이가 쓴 것을 읽어 보는 이도. 자막 ‘아기라면 키우셔야지요.’ 놀라서 소이와 종이를 번갈아 보는 이도에서 cut*.

#24. 글자방(밤, 회상)

글자 없는 글자방. 세필 붓을 광 놓는 이도.

이도 : 앞으로 이걸로 네 의견을 적거라.

소이 : (이도 보다가 세필 붓 보는데)

이도 :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네 생각을 적어 보거라.

소이 : (보면)

이도 : (약간 긴장한 채) 글자를..... 만들려 한다.

소이 : (보면)?

이도 : 쉬운 글자...... 너무나 쉬운 글자...... 어떠하냐?

소이 : (약간 놀라고)!

이도 : 아기를..... 키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이 :!

이도 : (초조한 듯 설명을 덧붙이며) 제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 그런 걸 만들려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소이 드디어, 붓을 든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 쓰는 소이. ‘是(옳을 시).’ ① 결연한 표정의 이도.

—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 cut : 장면을 중지한다는 의미.

41. ㉠의 연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의 불안감이 잘 드러나도록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주어야겠어.
- ②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이도 역을 맡은 배우의 얼굴을 근접해서 찍어야겠어.
- ③ 이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드러나도록 여러 인물의 모습을 삽입해야겠어.
- ④ 충격을 받은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이도 역을 맡은 배우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찍어야겠어.
- ⑤ 내면의 갈등을 숨기고 있는 이도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배우의 목소리를 내레이션으로 넣어야겠어.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세종(이도)이 한글을 창제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허구적 상상력의 하나가 한글 창제의 과정에서 세종이 노비 출신의 나인 ‘소이’를 비롯한 하위 계층과도 소통하였다는 설정이다.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백성의 입장에서 고뇌하고 좌절한 끝에 한글을 창제하게 되는 인간 이도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① ‘농사직설’이 한자로 씌어져 백성들에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도가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무는 보지 않아?’라는 이도의 말은 자신에 대한 당대 정치가들의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아기’의 함축적 의미를 활용하여 백성을 ‘때를 쓰는 ‘아기’로 여기는 이도의 인식과 ‘아기라면 키우셔야지요.’라는 소이의 글을 연결하고 있군.
- ④ 이도가 소이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글자방’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이도가 소이와 같은 하위 계층과 소통하는 공간이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공량: 들보.
*널로만 하노라: 너보다 많도다. *유정: 인정이나 동정심이 있음.
*호접: 나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4장’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5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6장’은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4장’과 ‘5장’은 현재와 과거를 대조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5장’과 ‘6장’은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된다. 「단가육장」은 그가 귀양살이를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한다.

- ① ‘풀어낸 시름’은 ‘적객’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간 데마다 따라오’는 ‘명월’은 화자가 지향하는 ‘신의’가 투사된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명월’을 ‘너’로 지칭하고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는 행위에서 자연물에 친화적인 화자의 시선을 엿볼 수 있군.
- ④ ‘설월’에 편 ‘매화’는 화자가 지향하는 ‘충절’의 이념과 관련지을 수 있겠군.
- ⑤ ‘이 향기’에는 귀양살이를 오기 전의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투영되어 있군.

45.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의 ‘벗’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과 ㉡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시간과 거리로 볼 수 있다.
- ③ ㉠과 ㉡은 화자와 ‘인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은 비관적 전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